

혼혈인에 대한 낙인연구 :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낙인효과*

오 미 영

(서울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점차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낙인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 세 유형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혼혈인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백인 혼혈인 보다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해 그리고 흑인 혼혈인보다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해 덜 긍정적인 인식과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인종주의는 세 유형의 혼혈인 대한 인식과 태도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은 백인 및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백인 및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유형의 혼혈인 모두에서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흑인의 경우에 있어서만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주제어: 낙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 혼혈인에 대한 태도, 차별행위,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국경이나 민족,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의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세계의 각 국가들은 지구촌이라는 이 공동체 하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하고 개별 국가와 민족 개념을 뒤로 한 채 자유롭게 인적, 물질, 문화적 교류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의 기치아래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로서 한국사회도 단일의 문화, 단일의 언어, 단일의 가치를 공유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한 인종, 문화, 종교, 가치가 한 데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421,641명에 달하며,¹⁾ 2004년 총 결혼 319,440건 중 11.4%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해당한다²⁾는 것은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돌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민족-다인종 혼혈인의 출생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2003년 펴낸재단이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혼혈인 수는 한국전쟁 직후 나타난 혼혈인이 약 1만 여명에 이르며, 아시아계 혼혈인이 약 1만 여명, 전체 혼혈 아동수는 약 3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김충환, 2006). 특히, 한국인과 아시아계 외국인 사이의 혼혈인인 코시안(Kosian)의 수는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전남 장흥군의 한 초등학교에는 전체 학생 166명 가운데 14명이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일 정도로 아시아계 혼혈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³⁾ 머지않은 미래에 이들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간과되어 왔던 혼혈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혼혈인들은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는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혼혈인에게 부당하게 부여되었던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들을 자신과 동등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대할 때만이 혼혈인들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혼혈인에 대한 연구는 혼혈인의 실태에 대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며, 이들 연구들은 주로 혼혈인 실태의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혼혈인들을 어

1) 법무부, 2005년 5월 외국인력 현황, 내부자료

2)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28일자

3) KBS 1TV 뉴스9, 2005. 8. 22

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혼혈인이 한국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상호이해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혼혈인에 대한 복지정책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혼혈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혼혈인의 사회환경적 복지 차원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혼혈인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주요 저해요소로 작용해 왔던,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함으로써 혼혈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오늘날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낙인(stigma)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낙인(stigma) 개념

낙인(stigma)이라는 용어는 원래 오명 혹은 불명예를 나타내기 위해 특정 개인에게 주어졌던 표식(mark)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인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Goffman, 1963). 이후, 고프만(Goffman, 1963)은 낙인을 더럽고, 결함이 있고, 손상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징표나 표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낙인찍힌 사람이나 대상을 정상적인 것에서 이탈되고, 오점이 있고, 명예가 실추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낙인은 보통 다른 사람의 몸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표식이나 자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낙인에는 이러한 표식이 갖는 사회적 의미, 즉 낙인 소유자는 피해야 할 대상이며 비우호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비디오, 메이저, 그리고 크로커(Dovidio, Major, Crocker, 2000)는 낙인을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표식에 근거한 차이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그 사람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이라는 적어도 이 두 기본요소를 갖는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정의하였다(p. 3). 또한 레어리와 슈레인돌퍼(Leary & Schreindorfer, 1998)도 낙인을 “피하거나, 배제시키거나, 추방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호작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가진 공동의 특성”으로 규정함으로써 낙인의 행위적 결과를 강조하기도 하였으며(p. 15), 크로커와 그 동료들(Crocker et al., 1998)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낙인의 네 가지 공통된 특성으로서 부정적인 고정관념, 대인적 배제, 사회적 차별,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낙인이 갖는 특성 중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낙인과 고정관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혼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개념은 엄밀히 구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특정 대상에 대해 갖는 고착화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낙인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고착화된 생각이라는 점에서는 고정관념과 유사하나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낙인은 부정적인 의미의 고정관념 범주에 포함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낙인이 부정적인 차원의 고정관념과 또 다른 점은 고정관념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만을 나타낼 뿐 가치나 명예를 하락시키거나 실추시키지 않는데 반해 낙인은 그 대상이나 가치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또는 피하거나 꺼려지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고정관념보다 그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낙인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Goffman, 1963). 첫째는 혐오스러운 신체에 주어지는 낙인으로서, 신체적 기형이라든지 비매력적인 신체적 특성에 주어지는 낙인이 그것이다. 신체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비만에 대한 낙인이 이러한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성격상의 결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낙인으로, 이는 탐닉, 급진적 견해, 범죄, 비정상적인 열정 또는 행동성향에서 기인하는 낙인이다. 여기에는 동성애자, 알콜중독자, 범죄자에 대한 낙인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발생적 낙인(generational stigma)으로 특정의 인종, 국적, 종교에 대해서 주어지는 낙인이다. 여기에는 흑인, 혼혈, 이단적 종교 등과 같은 대상에 대한 낙인이 포함된다.

낙인의 정도는 낙인의 내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존스와 그 동료들(Jones et. al., 1984)은 낙인이 은폐가능성, 진행, 파괴성, 심미성, 기원, 위협과 같은 6가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먼저 은폐가능성(concealability)은 낙인의 표식이 은폐가능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어떤 표식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명확하게 잘 드러나며, 이렇게 표식이 잘 드러나는 경우 낙인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인종이나 신체적 기형, 심각한 신체장애에 대한 낙인의 정도는 전과나 경미한 신경증, 알콜중독에 대한 것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진행(course)은 어떤 사회적 낙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낙인은 변화 및 회복이 가능한 낙인에 비해 낙인의 정도가 더 심하다. 파괴성(disruptiveness)은 표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방해받는지 하는 것이다. 표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낙인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낙인의 정도는 더 심하게 나타난다. 심미적 특성은 낙인에 대한 표식이 심미적으로 얼마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것이다. 신체적 기형이나 심한 화상과 같이 심미적으로 불쾌감을 많이 일으키는 표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표식보다 낙인의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기원(origin)은 낙인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낙인찍힌 개인이나 집단이 그 자신의 표식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낙인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에이즈 감염은 신체장애보다 그 낙인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협(peril)은 낙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하는 것으로, 위협이나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낙인일수록 낙인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낙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낙인을 사회적 구성물, 즉 사회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 간주

하며 어떤 특성, 행동 혹은 집단이 낙인찍히는가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제시한다(Crocker et al., 1998; Jones et al., 1984). 즉, 한 사람에 의해서 낙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낙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인여성은 비만에 대해서 낙인을 갖고 있지만 흑인여성은 그렇지 않다(Crandall, 1994; Crandall, Eshleman, & O'Brien, 2002; Hebl & Heatherton, 1997). 더불어, 낙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는 촉진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어떤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에서보다 낙인이 더 현저하게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족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문화에서보다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낙인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적인 학자들은 어떤 특성들이 낙인으로 되는가 하는 것은 문화에 상관없이 공통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Park et al., 2003). 그들에 의하면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인간은 어떤 특성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단을 그들로부터 배제하거나 낙인 짓는 인지적 적응구조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이 사회적 교환에 적절하지 않은 파트너라든지, 전염병을 가져올지 모른다는지, 내부집단의 이득을 착취할 수 있는 외부집단의 구성원이라든지, 특성들이 낙인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나 시대에 상관없이 어떤 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신념이 어떠한 특성들이 낙인찍힐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들에 부여될 고정관념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 역시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이나 가치에 의해서 주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혼혈인에 대한 낙인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혼혈이라 함은 “서로 인종이 다른 부모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게 양쪽의 형질이 섞이는 일, 또는 그 혈통”이라 할 수 있으며, 혼혈인은 “인종이 다른 두 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다(삼성출판사, 1989).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혼혈’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다. 피의 순수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혼혈 또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중립적인 표현이 아닌 이미 부정적인 가치가 내포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순혈과 대립되는 의미로서의 혼혈은 섞이지 않은 피는 깨끗하고 우월하며, 섞인 피는 잡종, 더러움, 무질서, 비정상, 장애, 오염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인종주의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렇듯 ‘혼혈’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기준 하에서 ‘혼혈’과 ‘순혈’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묶으로써 순수 인종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연구자들은 유전적으로 단일하고 순수한 인종 집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거나 ‘오염되다’란 개념들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pickard, 1999; Tizard & Phoenix, 1993).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혼혈아’라는 용어 대신에 ‘다문화가족 2세’, ‘이중문화가정 자녀’, ‘국제아’와 같은 대안적 호칭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과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정상’ 밖의 주변적 위치에 두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이승애, 2006).

우리나라에서 혼혈인이 사회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8.15 해방이후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기지촌을 둘러싸고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인이 태어나면서 부터이다(한혜원 2001). 이 시기를 혼혈 1세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시기 이전까지 한국에서 혼혈이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주변의 이민족들과의 혼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외모적으로나 혈통적으로 동화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혼혈 1세대로 간주되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은 과거와 달리 피부색과 외모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생배경이 기지촌여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부계혈통의 강조는 특히 제 1세대 혼혈인을 낙인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국인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아버지의 성을 타고 태어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의 경우 호적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대부분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부계혈통에 대한 강조는 부계혈통이 다른 기지촌 중심의 혼혈인들을 한국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이들을 특별한 출생배경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듦으로써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인지웠던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도덕적, 정서적 결함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즉,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모델의 부재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회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기지촌여성들을 모계혈통으로 하는 혼혈인의 경우 기지촌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비윤리적인 시각과 사회 최하층계급에 대한 인식이 이들에게까지 전이됨으로써 이중적인 차별과 오명을 받아왔다(이승애, 2006).

이후 1980년대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 내 유입으로 인해 동남아 남성과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근래 한국남성과 주로 한국농촌에 시집 온 동남아시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혼혈 2세대, 제 3세대로 불린다(송길원, 2006). 이 2, 3 세대의 혼혈인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코시안(Kosian)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코시안의 부모가 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체로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국,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의 출신이고, 현재 주로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 하위계층에 속하고 있다. 또한 한국으로 시집온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경우 주로 현지에서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결혼소개업체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소위 '신부수입'이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버리기 어려우며(허정, 2006). 이들과 결혼한 한국농촌의 총각들 역시 한국사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들의 자녀인 코시안을 대하는 데 있어서,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다는 것, 이들의 부모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후진 국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이들을 마치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로 치부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코시안들은 한국사회에서 배제와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출현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었다기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초래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과 가부

장적인 문화는 혼혈인을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 더 나아가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후 강화된 단일민족주의와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강조는 피부색과 출생배경이 다른 혼혈인들을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규정짓도록 만들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한민족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민족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민족이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한 핏줄,' '한 형제'라는 민족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은 국가 존립과 재건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이러한 가치에 의거하여 다른 인종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은 순혈을 강조하는 혈연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허정, 2006). 따라서 피부색과 출생배경이 다른 혼혈인들은 '우리'가 아닌 '타인'이었으며, 학교와 사회에서 항상 놀림과 따돌림, 차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즉, 혼혈인은 순수 혈통주의를 지향하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흠집을 내는 불순한 존재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이방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강지영, 2006).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인들의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가? 자넬리(Janelli, 1987)가 혼혈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 4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으며, 혼혈인이 한국에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 15%만이 그렇다고 대답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도 이들을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한혜원(2001)도 한국인이 가족의 국제결혼과 외국인의 귀화현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에 대해서는 차별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남들과 다른 외모로 인한 거부감이 차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지촌 여성에게서 출생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 40.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기지촌 여성에게서 출생한 혼혈인에 대해 비윤리적인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 결혼정보회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혈인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⁴⁾ 조사대상의 64.8%가 "혼혈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을 하여 혼혈인과의 높은 결혼의사를 보였지만, 황인계 혼혈(25.6%)이나 흑인계 혼혈(6.1%)에 대한 비중은 백인혼혈(64.3%)에 비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유색인종 혼혈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에 내제된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와 깊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후진한 국가에 대한 무시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강지영, 2006).

혼혈인에 대한 잘 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은 차별행위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 태도와 습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200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혼혈인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학교에서 받는 놀림과 따돌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혼혈아들은 유아기를 거쳐 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반 아이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혼혈아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4) 결혼정보회사 듀오, www.duo.co.kr

되며, 그 결과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졸업이후에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있어서 어려움뿐만 아니라 병역과 고용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기회에 있어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들어 이들을 배제시키고 있다. 그 결과 18세 이상의 혼혈인 중 2/3 정도가 실업상태이며, 취업 중인 사람들조차도 주로 단순노동이나 서비스 계통의 비정기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태, 1999). 이렇게 혼혈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기회와 취업기회의 단절로 인해 사회하층계급으로 전락하였으며,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낙인효과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낙인정도는 낙인의 유형이나 특성과 같은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특정 사람, 대상을 낙인짓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사회심리학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어떠한 특성이 낙인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특정의 개인적 특성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편견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고 더 차별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서 낙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낙인은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Allport, 1954), 기독교적 행동윤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Crandall, 1994, 2000), 체계를 합리화하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Jost & Major, 2001), 그리고 사회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Pratto,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낙인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낙인 및 혼혈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근거해 보았을 때, 혼혈인에 대한 낙인은 자민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종주의, 위계의식, 사회경제적 지위, 혼혈인에 대한 경험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인들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 자민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다루는 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과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치체계가 혼혈인을 잘 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 더 나아가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박경태, 1999; 이철우,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3). 한국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단일 민족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배워왔으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민족의 우수성을 국가주의 혹은 애국주의와 연결시키도록 학습되었다(강지영, 2006). 즉, 우리 민족이 단군의 피를 이어받은 '한 핏줄,' '한 형제'라는 단일민족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순수혈통주의에 대한 강조는 피부색과 출생배경이 다른 혼혈인들을 우리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었으며, 학교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혈통을 중요시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의식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와 대립되는 경향으로서 개인이 얼마나 세계적인 성향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사회는 국경이나 민족, 인종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세계화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원에서 세계 각국과 다양한 교류를 함으로써 세계화에 발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한혜원, 2001).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시민들의 성향이나 마인드도 이전보다 훨씬 세계화 또는 국제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늘어가는 해외여행자, 해외유학의 급증, 국제결혼의 증가 등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시민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들 중에서도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와 다른 것들을 비정상적이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배제적인 태도가 더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종주의에 기반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종을 백인과 백인이 아닌 인종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는 한국사회에서 다른 인종을 보는 또 다른 기준이 됨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인 태도를 형성시키는 데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강지영, 2006). 다니엘 헨니(Daniel Henney)나 데니스 오(Dennis O'Neil)와 같은 백인 혼혈들이 대중에게 별 편견없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유색인종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태생이나 외모상의 차이를 문제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백인우월주의라는 한국인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즉, 백인은 우월하고 그 외의 흑인과 동남아인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폭력적이라는 인종주의적 편견은 이들 인종과 한국인 사이의 혼혈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백인과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 보다 흑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에게 더 많은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이 흑인계 보다 백인계 혼혈아에 대해 더 높은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는 것은 백인 중심의 인종주의적 편견이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위계의식은 혼혈인에 대한 낙인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계의식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입장에 두지 않고 서로 차별하여 서열을 매기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설동훈, 1997, p. 20). 한국사회에는 재산, 나이, 집안, 출신지역 등 다양한 차원에 기반한 위계의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계의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던 직업에 따른 위계서열은 일부 계승되어 오늘날 육체노동자에 대한 천시 풍조로 남아있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외국노동자를 천대하는 분위기를 낳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출신지역에 입각한 위계의식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 나라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멸시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강지영,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위계의식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실질적으로 위계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및 차

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주어진 상황 또는 관계에서 개인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도 낙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스크(Fiske, 1993)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성과가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권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적으며, 따라서 권력을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고정관념화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적은 사람들보다 행동의 제약을 덜 받으며 (Galinsky, Cruenfeld & Magee, 2003), 분노를 더 공개적으로 표현하며(Tiedens, 2000), 더 많은 행동상의 변화를 보인다(Guinote, Judd, & Brauer, 2002). 더불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개인적, 집단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며(Richeson & Ambady, 2001a), 낙인소유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암시적인 선입견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Goodwin, Gubin, Fiske, & Yzerbyt, 2000).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개인이 과거에 혼혈인과 가졌던 경험 또한 혼혈인에 대한 낙인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 의하면 낙인찍힌 집단의 구성원과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한다(Allport, 1954). 페티그루와 트롭(Pettigrew & Tropp, 2000)이 사람들이 소수인종,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 동성애자, 정신질환자와 면대면 접촉을 한 후에 이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펴본 결과 접촉의 증가가 낙인의 감소와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접촉이 낙인소유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적인 변화에 의해서보다는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더 강하게 중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간혹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잘 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형성하기 쉽다. 혼혈인이나 특정 외국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경우 주로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단편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의존하여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경험하지 못한 채 대중매체를 통해서 형성된 인식이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이것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잘 못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고착되는 것이다(한혜원, 2001).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받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 즉 낙인은 혼혈인에 대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낙인소유자에 대한 반응연구에 의하면, 낙인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낙인찍힌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행동상의 편견을 보인다고 한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인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다든지(Kleck, 1969),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한다든지(Comer & Piliavin, 1972) 하는 것은 낙인지위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상의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Hebl & Dovidio, 2005).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낙인찍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감정

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한 비언어적, 유사언어적 행위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혼혈인에 대한 낙인 역시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중에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혼혈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를 비언어적인 형태로 표현할 가능성이 많지만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인 언어적 행위로 드러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혈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언어적 표현을 하진 않지만 무시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등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부정적인 편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혼혈아들이 유아기를 거쳐 학교에 입학하면서 일반아이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2003)의 조사결과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을 학교와 사회에서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놀리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차별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낙인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이는 혼혈인 유형(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종주의, 위계의식, 사회경제적 지위, 및 혼혈인에 대한 경험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혼혈인 유형(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간에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혼혈인에 대한 낙인은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표본추출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08년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은 서울 시내를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의 변화가를 중심으로 편의적인 방

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었으며, 표본의 성별, 연령 및 직업군이 골고루 분포되도록 추출하였다.

설문지는 백인 혼혈인들에 대한 설문지, 아시아계 혼혈인들(코시안)에 대한 설문지, 흑인 혼혈인에 대한 설문지 세 유형으로 준비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들이 각 설문지 유형에 무작위로 노출될 수 있도록 백인계, 아시아계, 흑인계 혼혈인에 대한 설문지가 차례대로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총 5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배포된 설문지는 설문조사자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수거되었다. 이 중에서 완성도가 미흡한 13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537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이용되었으며, 여기에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설문지 175부,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설문지 172부, 그리고 흑인 혼혈인에 대한 설문지 190부가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46.6%, 여성이 53.4%였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46.2%, 30대가 25.0%, 40대가 16.4%, 50대 이상이 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월평균 총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8.8%,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6.9%, 300만원-500만원이 28.1%, 500만원-700만원이 16.1%, 700만원 이상이 1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정도는 고졸미만이 4.1%, 고졸이 23.3%, 대학재학 또는 졸업이 66.2%, 대학원재학 또는 졸업이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직업은 전문직이 17.0%, 사무/관리직이 14.9%, 판매/서비스/영업직이 12.1%, 학생이 25.9%, 주부가 8.0%, 자영업이 9.1%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 측정

(1) 혼혈인에 대한 낙인

본 연구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낙인을 혼혈인이 가진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표식에 근거한 차별적인 인식과 그로 인해 혼혈인들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인식이라 함은 어떤 대상 및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태도는 인지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요소를 함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em(1970)은 태도를 “사람, 사물, 또는 이슈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거나 지속적인 긍정적·부정적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인지적 판단인 인식과 태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에 기반하여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르포어와 브라운(Lepore & Brown, 1997)의 British Prejudice Scale, 보보와 크루겔(Bobo & Kluegel, 1993)의 Prejudice Index, 피프레이, 휴리츠, 그리고 스나이더맨(Peffley, Hurwitz, & Sniderman, 1997)의 Racial Stereotypes Measure 등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기반으로 하여, 이들 척도에서 제시된 문항들 중에서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문항들을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에서 일반 한국 사람들이 혼혈인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혼혈인들은 일반 한국 사람들만큼 뛰어나지 못하다,” “혼혈인도 우리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혼혈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대부분의 혼혈인들은 범죄나 일탈행동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등

1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또한,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인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기존의 척도에 기반하여 측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브라이엄(Brigham, 1993)의 '흑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인종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우드맨시와 쿡(Woodmansee & Cook, 1967)의 MARI(Multifactor Racial Attitude Inventory), 아드와 쿡(Ard & Cook, 1977)의 MARI-SS, 맥코네이, 하디, 그리고 배트(McConahay, Hardee, & Batts, 1981)의 MRS(Modern Racism Scale)에 근거하여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학교나 직장 등에서 혼혈인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이 꺼려진다," "혼혈인 친구를 다른 친구나 이웃에게 소개시킬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소개시켜주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혼혈인과 함께 있으면 좀 창피할 것 같다," "사람들이 혼혈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나는 무척 화가 난다" 등을 포함하는 10개의 항목을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역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혼혈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항목에서 응답자가 5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그리고 1점에 가깝게 응답하였다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응답자들이 평소에 혼혈인을 대하는 경우 어떠한 행동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보일 것 같은지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거리에 지나가는 혼혈인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곤 한다," "나는 공공장소에서 혼혈인들과 마주치게 되면 피한다," "혼혈인들에게 무시하는 말이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한 5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행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3)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세계주의(cosmopolitanism)

자민족중심주의란 "자기 자신의 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을 그것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경향"을 일컫는 것으로(Sumner, 1906, p.13),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야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다른 나라 및 그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성향을 나타내는 세계주의(Kosterman & Feshbach, 1989)와 대립되는 경향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주의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간주하였으며, 자민족중심주의를 나타내는 척도와 세계주의를 나타내는 척도를 결합하여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뉴립(Neulip, 2002)의 GENE Scale(Generalized Ethnocentrism Scale), 코스터맨과 페쉬바흐(Kosterman & Feshbach, 1989)의 '국제주의' 척도, 샬마, 쉼프, 그리고 신(Sharma, Shimp, & Shin, 1995)의 '문화적 개방성' 척도, 그리고 칼리기우리(Caligiuri, 1992)의 '국제적 성향' 척도 등에 근거하여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도출하였

다. 도출된 문항들은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판단할 때 나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건 없건 간에 다른 나라를 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다.”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들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졌으며, 특히 자민족 중심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코딩됨으로써 1점에 가까울수록 자민족중심성향이 강하고 5점에 가까울수록 세계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4)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와 통제를 제도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적인 가치체제를 일컫는다(박충일, 1995). 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김양화·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척도에 기반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척도는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세 개의 하부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하부척도 중 가정생활과 관련된 세 가지 요인--권력관계 및 제도요인, 역할요인, 가부장적 가족주의 요인--에 근거하여 가부장적 권위주의 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여자의 본분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돌보는 것이다.”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이 사용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 역시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문항 중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상반되는 내용의 문항인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의 답변을 역코딩하였다. 그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권위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5)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특정 인종을 비하하거나, 우월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유색인종을 비하하고, 백인종을 우월시하는 백인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인종주의를 측정하였다. 인종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은 Woodmansee & Cook (1967), Bringham(1993), Henry & Sears (2002) 등이 제시하였던 인종주의적 편견을 나타내는 항목들 중에서 백인우월주의를 나타내는 항목만을 추출하였다. 그리하여 “백인은 흑인보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흑인과 백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흑인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은 백인들만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 흑인과 백인이 사회적 특권을 동등하게 누리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포함하여 9개의 문항이 인종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졌으며, 인종주의와 상반되는 내용의 문항은 역코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6) 위계의식

본 연구에서는 위계의식 정도를 호프스테드(Hofstede, 1984)의 권력거리(power distance)에 기반하여 측정하였다. 그의 권력거리 개념은 학교, 직장, 가정, 사회와 같은 사회 제도와 조직에서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에 기반하여 사회 제도와 조직에서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해서 위계의식을 측정하였다. 권력거리 개념을 나타내는 여러 특성들에 기반하여 위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들이 도출되었으며, “사람들 사이에 권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위계체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을 포함한 5개의 문항이 이용되었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은 5점 척도 상에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계의식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7)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소득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들의 학력정도와 소득정도를 통해서 측정되었다. 그리하여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8) 혼혈인에 대한 경험

혼혈인에 대한 경험은 주위에서 혼혈인을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 혼혈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거나, 혼혈인과 대화를 해 봤거나, 혼혈인과 같이 얼마나 많이 지내보았는지, 그리고 주변에 알고 있는 혼혈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4개의 문항에 1점(전혀 없다)부터 5점(매우 많다)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3) 신뢰도 검증

다항목으로 측정된 변인들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α)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85, 10개 문항의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86, 5개 문항의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65, 4개 문항의 혼혈인에 대한 경험은 .85, 12개 문항의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은 .75, 9개 문항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86, 5개 문항의 위계주의는 .62, 9개 문항의 인종주의는 .82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위계주의의 경우 크론바흐 알파(α)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60 이상인 경우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모든 변인들의 내적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혼혈인에 대한 낙인 양상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각 혼혈인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표 1> 참조), 백인 혼혈인의 경우,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M=4.09, SD=.93), “게으르다”(M=4.07, SD=.96)가 제시된 문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M=3.01, SD=1.17)와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M=3.17, SD=.94)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백인 혼혈인들을 성실성 및 독립성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경제력 및 적극성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한국사람만큼 뛰어나지 못한 것 같다”(M=3.91, SD=.92), “범죄나 일탈행동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M=3.88, SD=1.04), “도덕적이지 못하다”(M=3.86, SD=1.04), “보통 한국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M=3.78, SD=1.06), 나와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M=3.70, SD=1.17)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긴 했지만 그리 높은 점수를 보이진 않으므로써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약간 긍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몇몇 문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전반적으로 그리 긍정적이지도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게으르다”(M=3.84, SD=1.11)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다”(M=3.81, SD=1.0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M=2.10, SD=.81)와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M=2.88, SD=.89)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아시아계 혼혈인들을 근면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경제력과 적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외의 항목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3.26~3.72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리 긍정적이기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몇몇 문항에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약간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리 긍정적이지도 그리 부정적이지도 않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M=3.80, SD=1.05)와 “게으르다”(M=3.81, SD=1.2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M=2.09, SD=.72)와 “혼혈인들은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M=2.96, SD=.90)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흑인 혼혈인들을 독립성과 성실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경제력과 적극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의 항목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3.37-3.79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리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기도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혈인 유형별로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결과,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계 혼혈인이나 흑인 혼혈인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간에 공통된 인식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세 혼혈인 유형 모두에서 “게으르다”와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다”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 반면,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또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 혼혈인에 대한 인식

항 목	백인계 (N= 175)		아시아계 (N=172)		흑인계 (N=190)		F
	M	SD	M	SD	M	SD	
혼혈인은 범죄나 일탈행동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3.88 ¹²	1.04	3.59 ¹	1.14	3.54 ²	1.13	4.93**
보통 한국사람들이 혼혈인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55	1.10	3.34	1.19	3.37	1.18	1.67
혼혈인들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다.	3.86	1.04	3.81	1.09	3.70	1.10	1.11
혼혈인들은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4.09 ¹²	.93	3.79 ¹	1.03	3.80 ²	1.05	4.96**
혼혈인들은 게으르다.	4.07	.96	3.84	1.11	3.81	1.21	3.12*
혼혈인들도 나와 같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70	1.17	3.44	1.15	3.62	1.19	2.17
혼혈인들은 한국사람만큼 뛰어나지 못한 것 같다.	3.91	.92	3.72	1.00	3.79	1.00	1.87
혼혈인들은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3.17 ¹	.94	2.88 ¹	.89	2.96	.90	4.67**
혼혈인들은 폭력적인 것 같다.	3.62	1.05	3.60	1.08	3.53	1.08	.42
혼혈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	3.01 ¹²	1.17	2.10 ¹	.81	2.09 ²	.72	59.35**
혼혈인들은 보통 한국사람 처럼 느끼고 생각한다.(+)	3.78 ¹²	1.06	3.35 ¹	1.06	3.46 ²	1.17	6.97**
혼혈인들은 원칙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3.55	1.16	3.55	1.12	3.52	1.05	.07
혼혈인들은 자존감이 부족하다.	3.64 ¹	.10	3.26 ¹²	1.14	3.53 ²	1.01	6.16**

* p < .05, **p < .01

¹², ¹, ² 같은 숫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역코딩됨.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혼혈인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몇몇 항목에서 혼혈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범죄나 일탈행동을 일삼는 경향이 있다,” “자립적이지 못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보통 한국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에 대해서 아시아계 혼혈인이나 흑인 혼혈인을 백인 혼혈인 보다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이며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시아계 혼혈인을 백인 혼혈인보다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부족하다”에 대해서는 아시아계 혼혈인이 백인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 보다 덜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계 혼혈인이나 흑인 혼혈인을 백인 혼혈인 보다 더 일탈적이며, 의존적이며, 빈곤하며, 덜 한국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며, 아시아계 혼혈인을 흑인 혼혈인 보다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더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들 중에서 특히 “가장 친한 친구가 백인 혼혈인이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M=4.41, SD=.90), “백인 혼혈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소개시켜줄 수 있다”(M=4.35, SD=.94) 그리고 “백인 혼혈인도 보통 한국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M=4.30, SD=.83)에서는 상당히 호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백인 혼혈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무척 화가 난다”(M=3.12, SD=1.15) “백인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M=3.67, SD=1.28)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는 4.0~4.28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의 경우,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중에서 “아시아계 혼혈인도 보통 한국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M=4.05, SD=1.04)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시아계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M=2.73, SD=1.33)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항목들에서는 대체로 3.05~3.81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거의 중립적이거나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도 몇몇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거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항목 중에서 “흑인 혼혈인도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M=4.19, SD=.91)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흑인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M=2.55, SD=1.27)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에서는 대체로 3.07~3.86의 점수를 보임으로써 전반적으로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혼혈인 유형별로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아시아계

혼혈인이나 흑인 혼혈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의 경우 공통으로 “보통 한국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아시아계 또는 흑인계)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백인 혼혈인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가 백인 혼혈인이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에서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혼혈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무척 화가 난다”에서 가장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와 아시아계 및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2〉 혼혈인에 대한 태도

항 목	백인계 (N= 175)		아시아계 (N=172)		흑인계 (N=190)		F
	M	SD	M	SD	M	SD	
혼혈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소개시켜 줄 수 있다.(+)	4.35 ¹²	.94	3.72 ¹	1.14	3.63 ²	1.52	22.14**
혼혈인이 내 옆집으로 이사온다면 웬지 꺼려질 것 같다.	4.15 ¹²	.94	3.60 ¹	1.05	3.45 ²	1.20	21.23**
혼혈인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무척 화가 난다.(+)	3.12	1.15	3.05	1.11	3.07	1.09	.17
혼혈인도 보통 한국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	4.30 ¹	.83	4.05 ¹	1.04	4.19	.91	3.32*
가장 친한 친구가 혼혈인이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	4.41 ¹²	.90	3.78 ¹	1.10	3.66 ²	1.23	23.94**
혼혈인을 보면 웬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4.28 ¹²	.83	3.48 ¹	1.12	3.54 ²	1.11	33.18**
혼혈인이 보통 한국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17 ¹²	.93	3.81 ¹	1.06	3.86 ²	.98	6.67**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67 ¹²	1.28	2.73 ¹	1.33	2.55 ²	1.27	38.48**
보통 한국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만큼 혼혈인도 믿을 수 있다.(+)	3.81 ¹²	.97	3.37 ¹	1.05	3.39 ²	1.17	9.70**
일반 한국아이들과 혼혈 아이들을 학교에서 따로 교육시켜야 한다.	4.08 ¹	1.05	3.72 ¹	1.24	3.83	1.14	4.53*

* p < .05, **p < .01

¹² 같은 숫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역코딩 됨.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호의적 태도를 나타냄.

구체적으로, 혼혈인 유형 간에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

검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소개시켜 줄 수 있다,” “내 옆집으로 이사 온다면 웬지 꺼려질 것 같다,” “가장 친한 친구가 혼혈인이어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 같다,” “웬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보통 한국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혼혈인과 결혼하는 것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한국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만큼 혼혈인도 믿을 수 있다”와 관련하여 아시아계와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보다 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한국사람들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와 “일반 한국아이들과 혼혈 아이들을 따로 교육시켜야 한다”에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보다 상대적으로 덜 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계 혼혈인이나 흑인 혼혈인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보다 대체로 덜 호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2) 〈연구문제 2〉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혼혈인 유형별로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인종주의, 위계의식, 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 그리고 혼혈인에 대한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변인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의 평균점수가 이용되었다.

먼저,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소득이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와 소득은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인종주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즉 세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인종주의적 편견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이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인종주의와 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이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입된 모든 변인들이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3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는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자민족중심성향이 높을수록, 즉 세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세 변인 중에서 인종주의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입된 모든 변인들은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의 약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백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		
		b	Beta	t	b	Beta	t
자민족중심/세계주의성향		.25	.21	7.39**	.26	.21	2.91**
가부장적 권위주의		-.07	-.10	.19	-.09	-.12	-1.52
인종주의		-.33	-.41	-6.24**	-.26	-.31	-4.45**
위계의식		.04	.05	.75	.01	.01	.16
혼혈인 경험		.05	.08	1.31	.06	.09	1.35
소득		.09	.21	3.18**	.05	.10	1.40
학력		.03	.04	.56	.14	.16	2.28*
F		14.05			9.91		
R ²		.35			.27		

* p < .05, **p < .01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표 4〉 참조), 먼저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는 투입된 변인들 중에서 인종주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인종주의적 편견이 많을수록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투입된 모든 변인들이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5%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4〉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		
		b	Beta	t	b	Beta	t
자민족중심성향		.13	.10	1.52	.31	.21	2.88**
가부장적 권위주의		-.09	-.11	-1.61	.03	.04	.47
인종주의		-.46	-.58	-8.17**	-.48	-.49	-6.64**
위계의식		.07	.07	1.18	.08	.05	.75
혼혈인 경험		.01	.02	.28	.07	.08	1.26
소득		.05	.10	1.65	.01	.02	.32
학력		.05	.04	.70	.08	.07	.98
F		20.61			13.91		
R ²		.45			.35		

**p < .01

또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는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와 인종주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즉 세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그리고 인종주의적 편견이 많을수록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두 변인 중에서 특히 인종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 보다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주의가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입된 모든 변인들은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의 약 35%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표 5〉 참조),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학력이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즉 세계주의 성향이 낮을수록, 인종주의적 편견이 많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세 변인 중에서 인종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와 학력에 비해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투입된 모든 변인들은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의 약 48%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5〉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		
		b	Beta	t	b	Beta	t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27	.19	3.22**	.17	.10	1.61
가부장적 권위주의		-.06	-.07	-.96	-.06	-.07	-.84
인종주의		-.48	-.52	-7.94**	-.56	-.52	-7.61**
위계 의식		-.01	-.01	-.16	-.03	-.02	-.33
혼혈인 경험		.04	.04	.78	.14	.14	2.42*
소득		.01	.02	.32	-.02	-.03	-.58
학력		.13	.13	.28*	.15	.13	2.18
F		25.41			20.53		
R ²		.48			.42		

* p < .05, **p < .01

또한,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는 인종주의와 혼혈인에 대한 경험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종주의적 편견이 많을수록 그리고 흑인 혼혈인에 대한 경험이 적을수록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두 변인 중에서 인종주의가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혼혈인에 대한 경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종주의가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주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입된 모든 변인들

은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의 약 4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각 혼혈인 유형별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각 혼혈인 유형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먼저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인종주의는 모든 혼혈인 유형에서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반면에, 이 외에 백인 혼혈인의 경우 자민족중심성향과 소득이, 흑인 혼혈인의 경우 자민족중심성향과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성향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혼혈인 유형에 따라 소득이나 학력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투입된 변인들이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백인계 35%, 아시아계 45%, 흑인계 48%인 것으로 나타나 투입된 변인들의 아시아계 및 흑인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유형의 혼혈인 모두에서 인종주의가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백인 혼혈인의 경우 자민족중심성향과 학력이, 아시아계 혼혈인의 경우 자민족중심성향이, 그리고 흑인 혼혈인의 경우 혼혈인에 대한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혼혈인에 대한 태도도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성향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혼혈인 유형에 따라서 학력이나 혼혈인에 대한 경험이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투입된 변인들이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백인계 27%, 아시아계 35%, 흑인계 42%인 것으로 나타나 흑인계 혼혈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문제 3>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

혼혈인에 대한 낙인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혼혈인 유형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분석결과에 의하면, 세 유형 모두에서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비호의적일수록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정도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인식의 경우 흑인 혼혈인의 경우만이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 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흑인 혼혈인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인식이 태도보다 차별행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예측하는 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차별행위를 설명하는 정도는 백인 혼혈인의 경우 약 13%, 아시아계 혼혈인의 경우 20%, 흑인 혼혈인의 경우 3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차별행위를 설명하는 정도는 흑인 혼혈인의 경우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		
	b	Beta	t	b	Beta	t	b	Beta	t
혼혈인에 대한 인식	-.089	-.09	-.86	-.14	-.15	-1.42	-.23	-.26	-2.81**
혼혈인에 대한 태도	-.26	-.31	-2.94**	-.28	-.33	-3.18*	-.28	-.37	-4.04**
F	14.17			22.04			48.06		
R ²	.13			.20			.33		

* p < .05, **p < .01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점차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낙인개념에 근거하여 살펴봄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개선 및 다문화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근거를 제공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혼혈인에 대한 낙인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대인적 및 사회적 배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혼혈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백인 혼혈인, 아시아계 혼혈인, 흑인 혼혈인 세 유형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의 경우 경제력의 차원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약간 호의적인 반면에 아시아계나 흑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비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리 호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부분적으로 혼혈인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해 백인 혼혈인 보다 그리고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해 흑인 혼혈인 보다 덜 긍정적인 인식 또는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혼혈인 유형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인종주의가 세 유형의 혼혈인 대한 인식과 태도 모두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성향도 백인계 및 흑인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백인계 및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태도에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가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인종주의는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 보다 그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학력 및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혼혈인에 대한 경험도 일부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든 혼혈인 유형에서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혈인에 대한 인식은 흑인 혼혈인의 경우에서만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혈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관점에서 혼혈인에 대한 낙인양상을 살펴본 결과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약간 부정적이거나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낙인정도가 그 이전에 비해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전에 혼혈인을 비윤리적이고 결함이 있는 존재로 낙인짓는 주요한 요인이었던 그들의 출생배경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제 1세대 혼혈인의 경우 대체로 한국내 주둔한 미군과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기지촌 여성 사이에서 태어남으로써 이들에 대한 비윤리적인 시각과 사회최하층계급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며, 더불어 호적상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부계혈통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결함이 있는 존재로 낙인지워졌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혼혈인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상황에서 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혼혈인에게 부여되었던 비윤리적인 시각과 사회 최하층 계급으로서의 인식과 태도가 점차 완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 간의 교류증대, 해외여행 및 해외유학의 증가로 인해 한국인들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국제적인 마인드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국제적인 마인드는 한국인의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혼혈인도 나오는 다르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또 다른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형성시키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혼혈인에 대한 낙인 정도가 이전보다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해서 백인 혼혈인 보다 덜 긍정적이고 덜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서 백인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호의적이었지만 그 외의 유색인종에 대한 태도는 비호의적이었던 국가청소년 위원회(2003)의 조사결과를 지지해 준다고 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다니엘 헨니(Daniel Henney)나 데니스 오(Dennis O'Neil)와 같은 백인 혼혈들이 대중에게 별 편견없이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달리 유색인종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태생이나 외모상의 차이를 문제시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백인우월주의라는 한국인의 인종주의적 편견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백인을 선호하고 그 외의 유색 인종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백인우월주의라는 인종차별적인 성향이 한국인과 이들 인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 중의 하나는 몇몇 항목의 경우에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해 흑인 혼혈인보다 덜 긍정적인 인식과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백인종에 대해 가장 호의적이며, 그 다음으로 황인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인종의 순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해 흑인 혼혈인보다 덜 긍정적인 인식과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아시아계 혼혈인인 코시안의 출생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국 내에 있는 아시아계 혼혈인의 대부분은 한국의 농촌 총각과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시집

온 동남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어머니가 후진국가 출신으로서 신부수입을 통해 결혼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버지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농촌출신이거나 도시 하층계급출신이라는 점 등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에 대한 인식을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보다 덜 긍정적이고 덜 호의적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하인즈 워드와 같은 흑인 혼혈인이 대중적 인기를 얻음으로서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데 반해, 사회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나 관심을 받고 있는 아시아계 혼혈인이 없다는 것도 아시아계 혼혈인을 가장 덜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종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인의 인종주의적인 편견과 우리 민족이 최고이며 중심이라는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이 혼혈인을 비정상적이거나 결함이 있는 존재로 간주하거나 이들을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배제시키도록 하는 데 작용했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또는 민족적 배타성이 혼혈인을 잘 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의 대상 더 나아가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박경태, 1999; 이철우, 2003; 국가인권위원회, 2003)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준다고 할 것이다. 특히, 백인 혼혈인을 제외한 아시아계 혼혈인과 흑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인종주의가 자민족중심주의/세계주의보다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훨씬 더 컸다는 것은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가 인종주의에 근거하여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종주의적인 편견을 제거하고, 세계주의적인 마인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인종주의적인 편견이 제거되지 않고는 그리고 세계주의적인 마인드에 대한 함양이 없이는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혼혈인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조화와 상호이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혼혈인 유형에서 혼혈인에 대한 태도는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인지적인 판단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주로 감정적인 차원에 기반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흑인 혼혈인의 경우에만 혼혈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흑인혼혈인의 경우 TV나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형성된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백인계 혼혈인이나 아시아계 혼혈인의 경우 차별행위에 까지 영향을 미칠만한 뚜렷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혼혈인 유형인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가이들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이 아닌 막연하게 형성된 감정적인 태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감정적인 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현재 KBS에서 방송되는 '러브인 아시아'와 같은 프로그램은 아시아계 혼혈인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향후 TV와 같은 대중매체가 어떻게 혼혈인에 대한 태

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과거 수 천년동안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구축하여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신화를 기반으로 사회 통합과 결속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김세훈, 2006). 해외 이주노동자의 증대와 정주 외국인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한국사회를 혼혈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만들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이제 다문화주의를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주된 흐름으로 이해하고, 이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그대로 하나의 사회체제 속에 공존시키는 것으로서, 개별 사회를 약화시키거나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을 평화롭게 공존시켜 그들이 가진 개별적인 능력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조정남, 2007)는 점에서 향후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가치이며 제도라고 할 것이다.

혼혈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에 기반 한 시민의식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 기반 한 시민의식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 뿐만 아니라 문화적 평등을 강조하는 교육(AACTE, 1973)으로서, 문화적 요소나 역사적 요소 그리고 초국가적 해결과제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계 미국 프로풋볼 선수인 하인스 위드의 방한 직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다문화교육의 지원을 위해 입법화를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와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다문화 공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장인실, 2007).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정적, 정책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각 시도나 시민단체 등 지방에 맞는 다문화 정책 및 교육이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것이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낙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과 태도 개선을 위해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와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낙인의 개념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적용시킴으로써 낙인연구의 범위를 한층 더 확장시켰으며,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효과를 낙인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함으로써 혼혈인 연구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혼혈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태조사나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 영향요인 및 효과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혼혈인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향후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다문화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 논의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의 표본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선 편의표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마저도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계 혼혈인인 코시안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확률표본이 이용되었을 경우 아시아계 혼혈인과 관련된 연구결과가 다른 양상을 보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거주자들에 한정시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총 표본 수가 537명이긴 했지만, 혼혈인 유형별로 이를 세분한 결과 각 혼혈인 집단별 표본 수는 200개를 넘지 못했으며, 이도 주로 20-30대 저연령층과 대학재학 및 대졸 학력의 고학력층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충분한 수의 표본과 고른 분포의 특성을 갖는 표본을 확보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이 확보된 연구결과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척도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경우 대부분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것들이거나 그것들을 조합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관련된 응답에 social desirability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혼혈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실제 인식과 태도보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들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혼혈인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지영 2006. “한국인의 의식과 혼혈인의 삶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수취인불명〉〈깜근이 엄마〉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2003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 연구-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세훈. 2006. “다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양희·정경아. 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충환. 2006.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박경태. 199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1호』, 제1권 3호, 189-208.

- 박충일. 1995. “가부장제 문화의 사회화 과정과 여성의 인지적 능력”. 『진주산업대논문집』, 34, 91-105.
- 설동훈. 1997.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작용”.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문제논문집』, 제13권, 1-28.
- 삼성출판사. 1989.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 삼성출판사
- 송길원. 2006. “혼혈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혼혈인 및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이승애. 2006. “한국사회에서의 혼혈여성의 경험을 구성하는 젠더와 인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우. 2003. “국적과 종족성에 의한 집단적 자아와 타자의 구별”, 『사회이론』, 제23호, 13-46.
- 장인실. 2007. “한국사회 다문화교육의 방향”.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정남. 2007.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제6호, 8-10.
- 통계청 DB, <http://kosis.nso.go.kr>
- 한혜원. 2001.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 2006. “코시안과 한국문학”. 『실천문학』, 384-403.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New York : Addison.
-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Teacher Education Commiss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1973. No one mode Americ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4(4), 264-265.
- Ard, N., & Cook, S. W. 1977. A short for the measurement of change verbal racial attitud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37, 741-744.
- Bobo, L., & Kluegel, J. 1993. Opposition to race-targeting : Self-interest, stratification ideology, or racial attitudes? *American Social Psychology Review*, 58, 443-464.
- Brigham, J. C. 1993. College students'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1933-1967.
- Caligiuri, P. 1992. Validity evidence for the international orientation scales as a predictor of expatriate adjustment. In J. Selmer (Ed). Proceeding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patriate Management(pp. 1-8). Hong Kong Baptist College.
- Comer, R. J., & Piliavin, J. A. 1972. The effects of deviance upon face-to-face interaction : The other si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33-39.
- Crandall, C. S. 1994. Prejudice against fat people : Ideology and self-inter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882-894.
- Crandall, C. S. 2000. Ideology and lay theories of stigma : The justification of stigmatization. In T. F Heatherton, R. E. Klerk, M. R., Helb & Hull (Eds), *Stigma :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126-150). New York : Guilford.
- Crandall, C. S., Eshleman, A., & O'Brien, L.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experience of prejudice :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2, 359-381.
- Crocker, J., Major, B. 1989.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 The self-protective properties of stigma. *Psychology Review*, 96, 608-630.
- Crocker, J., Major, B., & Steel, C. 1998. Social Stigma. In D. T. Guilbert., S. T., Fiske., & G. Lindzey

-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2 4th ed, pp. 504~553)*. Boston, M. A : McGraw-Hill.
- Dovidio, J. F., Major, B., & Croker, J. 2000. Stigma : Introduction and overview. In T. F. Heatherton., R. E. Klerk., M. R. Hebl., & J. G.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1-28)*. New York : Guilford.
- Fiske, S. T. 1993. Controlling other people: The impact of power on stereotyping. *American Psychologist*, 46, 621-628.
- Galinsky, A. D., Gruenfeld, D. H., & Magee, J. C. 2003. From power to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453-466.
- Goffman, E. 1963. *Stigma : Note on the Management of Social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Goodwin, S. A., Gubin, A., Fiske, S. T., & Yzerbyt, V. Y. 2000. Power can bias impression process : stereotyping subordinates by default and desig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3, 227-256.
- Guinote, A., Judd, C. M., & Brauer, M. 2002. Effects of power on perceived and objective group variability : evidence that more powerful groups are more vari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708-721.
- Hebl, M. R. & Dovidio, J. F. 1995. Promoting the "social" in the examination of social stigma.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56-182.
- Hebl, M. R. & Heatherton, T. F. 1997. The stigma of obesity: The difference is Black and Whit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417-426.
- Henry, P. J. & Sears, D. O. 2002. The symbolic racism 2000 SCALE. *Political Psychology*, 23, 253-283.
- Hofstede, G. 1984. *Culture's Consequences :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Janelli, R. 1987. The Amerasian: An ethnographic science of a Korean minority. In S. Laustin, *Korean Folklore and Ethnography* (pp. 8-11).
- Jones, E. E., Farina, A., Hastorf, A. H., Markus, H., Miller, D. T. & Scott, R. A. 1984. *Social Stigma : The psychology of Marked Relationship*. New York : Freeman.
- Jost, J. T., & Major, B. 2001.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 Emerging Perspective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 Jussim, L., Palumbo, P., Chatman, C., Madon, S. & Smith, S. 2000. Stigma and self-fulfilling prophecies. In T. F. Heatherton, R. E. Kleck, M. R. Hebl, & J. G.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New York: Guilford.
- Katz, I. & Hass, R. 1988.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Kleck, R. E. 1969. Emotional arousal in interactions with stigmatized persons. *Psychology Reports*, 19, 1126.
- Kosterman, R., & Freshbach, S. 1989. Toward a measure of patriotic and nationalistic attitudes. *Political Psychology*, 10, 257-274.

- Leary, M. R & Sreindorf, L. S. 1998. The Stigmatization of HIV and AIDS : Rubbing salt in the wound. In V, J, Derlega., A. P. Barbee (Eds). *HIV and Social Interaction* (pp.12-29). Thousand Oaks, CA: Sage.
- Lepore, L., & Brown, R. 1997. Category and stereotype activation: Is prejudice inevitab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75-287.
- McConahay, J. B., Hardee, B. B., & Batt, V. 1982. Has racism declined in America? It depends on who is asking and what is asked.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5, 563-579.
- Nuelip, J. W. 20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 : A contextual approach* (2nd ed). Boston : Houghton-Mifflin.
- Park, J. H., Faulfner, J, Schaller, M. 2003. Evolves disease-avoidance processes and contemporary anti-social behavior : prejudicial attitudes and avoidance of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J. Nonverbal Behavior*, 27, 65-87.
- Peffley, M., Hurwitz, J., & Snoderman, P. 1997. Racial stereotypes and whites' political vies of blacks in the context of welfare and crim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30-60.
- Pettigrew, T., & Tropp, M. 2000. Does intergroup contact reduce prejudice? Recent analytic findings. In S. Oskamp (Ed), *Reduc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pp.93-114).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Pratto, E. A., & Sidanius, J., Stallworth, L. M., & Malle, B. F. 1994.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 a personality variable predicting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 Richeson, S. A., & Ambaby, N. 2001a. when roles reverse : stigma, status, and self-evalu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1350-1378.
- Spickard, P. V. 1999. Sexing political identities/nationalism as heterosexism,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1, 34-65.
- Sharma, S., Shimp, T. A., & Shin, J. 1995. Consumer ethnocentrism : A test of antecedents and moderator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3, 26-37.
- Steel, C. M. 1997. A threat in the air : How stereotypes shape intellectual test performance. *American Psychology*, 52, 613-629.
- Sumner, W. G. 1906. *Folkways*. Boston : Ginn.
- Tiedens, L. Z. 2000. Powerful emotions : The vicious of social status positions and emotions. In N. Ashkasasy., W. Zerbe, & C. Hartel (Eds). *Economics in the Workplace :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pp.71-81). Westport, CT : Quorum.
- Tizard, B., & Pheonix, A. 1993. *Black, White, or Mixed Race?: Race and Racism in the Lives of Young People of Mixed Parentage*. Lindon: Routledge.
- Woodmansee, J, & Cook, S. W. 1967. Dimension of racial attitudes : Their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240-250.

A Study on the Stigma of Mixed-Race : Factors Affecting Stigma on Mixed-Race and Stigma Effect

Oh, Mi-Young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s and Media, Seoul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and attitude towards mixed-race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m and their influence on discriminative behavior. For the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residents residing in Seoul and its suburb.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s mixed-race, generally, were not so negative and positive in all three types of mixed-race, Caucasian-korean, Asian-korean, and African-korean. In addition, the perceptions of and attitudes toward mixed-race were partly different by the type of mixed race. That is, there were more positive perceptions of an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Caucasian-korean in Asian-korean and African-korean, and there were less positive perceptions of and less favorable attitudes towards Asian-korean than in African-korean. With regard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racism was a factor affecting commonly the perception of and attitudes towards all types of mixed-race. The attitudes towards mixed-race had an influence on the discriminative behavior in all types of mixed-race, and, only in the African-korean, the perception of mixed race affected the discriminative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insights for w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mixed-race's welfare.

Key words: stigma, mixed-race, racism, ethnocentrism

[논문 접수일 : 2008년 12월 22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2월 17일]